

## 하계(霞溪) 권유(權愈) 산문 소고

—속중 연간 남인계 관각 문단과 관련하여

하지영\*

<차 례>

1. 서론
2. 17세기 남인계 관각 문인의 지향
3. 권유의 생애와 문학
4. 권유 산문의 특징적 양상
5. 결론

### <국문초록>

속중 연간 남인계 관각 문인들은 전대 문인의 상고적 정신과 문학적 시도를 계승하면서도,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체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처럼 문예, 문체, 수사(修辭)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속중 연간 남인계 관각 문단을 대표하는 권유는 노론계 문인과는 다른 글쓰기 미감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은 자구의 조탁에 힘쓰고 생경한 전고를 끌어오는 등 난해성이 두드러진다. 인물의 삶을 기록하는 전장, 비지류의 글쓰기의 경우 대상 인물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그대로 그의 삶을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노론계 문인과의 차이를 드러냈다. 이러한 권유의 글쓰기 방식은 자신의 주관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대상 인물의 삶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권유 문학에서 진단되는 난해성, 서사성을 남인계 문단 일반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추후 다른 남인계 관각문인의 작품 분석이 병행되어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관평, 송시열 등의 노론계 문인의 글쓰기와 권유의 글쓰기

\*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

가 보이는 차이가, 각 당파가 내세우고 있는 전범인 당송과 진한고문 간의 차이와 겹쳐진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권유의 문학은 기이한 개성의 반영이라기보다는, 당대 남인들의 요구와 취향을 극단적으로 추구한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근기 남인, 관각 문인, 숙종 연간, 權愈, 힐굴오아, 고문, 상고적 문학론

## 1. 서론

조선시대, 정권은 곧 문단의 권력을 의미한다. 어떤 임금, 당파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글쓰기의 표준이 달라졌다. 이는 내용뿐 아니라 전범, 문체, 구성 방식까지 포괄한다. 정조의 문체 반정은 이러한 사실을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이다. 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시기가 바로 숙종 연간이다.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기사환국(己巳換局), 갑술환국(甲戌換局) 등 일련의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노소론, 남인 사이에서 정권을 둘러싼 다툼이 심화되었다. 각 당파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함께 사상적, 문학적 정체성을 각각 분화시켜 나갔다.

이때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남인계 문인들이 자신의 글쓰기 지향을 명료하게 드러내며 문단의 주도권을 잡았던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권유(權愈 1633~1704), 이서우(李瑞雨 1633~1709), 이옥(李沃 1641~1698), 민창도(閔昌道 1654~1725) 등을 들 수 있다. 숙종 즉위 후 경신대출척 이전 6년, 그리고 기사환국에서 갑술환국 이전까지 약 5년간 정권의 주도권은 잠시 남인계로 넘어왔다. 이들은 이 시기 관각 문인으로 선발되어 서로 연대하며 서인, 노론계와 구별되는 문학적 정체성을 확보해 나갔다. 이들 남인들은 선배 문인인 허목(許穆), 정두경(鄭斗卿), 이민구(李敏求)의 문학론, 문체를 계승하며, 조선 문단에서는 보

기 드문 독특한 문풍을 형성하였다. 이 시기 남인계 문단을 고구해보면 다양한 문학적 흐름들이 상충하는 현장을 재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옥, 이서우를 제외하면 이들 문인들의 문집은 온전하게 남아 있지가 않아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17세기 후반 남인계 문학이 가지는 입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왔지만, 개별 작가 연구나 산문론 연구 나아가 실제 산문 작품을 고찰하여 미감을 추출하는 연구는 공백으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sup>1)</sup> 특히 권유는 남인계 산문 작가의 계보를 잇는 대표적인 문인이자 당대 문형을 맡았던 인물로 남인계 문단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17세기 남인계 관각 문인들의 지향을 논한 다음, 남인계 산문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례로 권유의 작품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노론계 문단과 변별되는 남인계 문단의 특징적인 국면을 포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 선행연구로 다음을 들 수 있다. 백승호(『正祖時代 政治의 글쓰기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13)는 18세기 체제공의 문학을 연구하면서 이들 문학을 전사(前史)로 다룬 바 있다. 권유, 유명천(柳命天), 유명현(柳命賢), 민창도, 이서우의 문학이 허목이 추구한 것과 같은 상고주의적 글쓰기를 시도하였다고 하면서, 이들 문인들이 한구정맥론과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 부유섭은 『17-18세기 중반 근기남인 문단 연구』(한중연 박사학위논문, 2009)에서 17세기에서 18세기 중반까지 근기 남인 문단의 형성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시론을 중심으로 이들의 문학적 특색에 대해서 논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권유, 이옥, 민창도 등의 생애와 행적을 소상히 밝혀내어 많은 참조가 된다. 개별 작가 연구는 이서우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서우는 남인계 시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에 주목하여, 임미정(『송곡 이서우의 시문학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2007.), 부유섭에 의해 시문학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들 논문에서 이서우의 생애 및 교유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잡체시, 영물시, 기속시가 주요작품으로 분석되었다. 산문에 대해서는 아직 고찰되지 않았다.

## 2. 17세기 남인계 관각 문인의 지향

숙종 즉위 초 정권이 잠시 남인계로 돌아갔을 때 대제학 김석주(金錫胄)를 제외하고 관각은 남인계 문인들로 재편성되었다. 홍문관제학에 민점(閔點), 예문관제학에 홍우원(洪宇遠)이 임용되었으며 이하 젊은 남인계 문인들이 관각을 채웠다.

1721년, 이옥의 문집 『박천집(博泉集)』에 대한 서문에서 권중경(權重經)은 다음과 같은 장면을 떠올렸다.

옛날 을묘년에 선왕께서 처음 즉위하시어 간혹을 모두 좇아내시고 우수하고 뛰어난 재주와 높은 덕을 지닌 이들을 등용하였다. 뛰어난 계책을 지닌 노소의 선비들이 조정에 함께 나와 일시에 사람을 얻은 것이 성대하다고 칭해졌다. 그런데 관각에서 문장을 담당하는 자를 선발한 것이 더욱 위대하였으니 매산(梅山) 이하진(李夏鎭), 하계(霞溪) 권유, 남곡(南谷) 권해(權楷)와 이옥(李沃)이 모두 문학으로 나와 서로 하늘과 사람의 관계를 궁구하고 구름과 노을 같은 생각을 발하여 서로 화답하여 일세를 찬미하였다.<sup>2)</sup>

권중경은 영의정 권대운(權大運)의 아들로 갑술옥사 이후 유폐되었다가, 이해 비로소 전라도관찰사에 임용되었다. 그로서는 숙종 즉위와 함께 선배 문인들이 서인들을 몰아내고 함께 관각에 올랐던 그 시절을 감개어린 어조로 회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말대로 을묘년(1675년) 당시 홍문관 응교에 권해, 부응교에 이옥, 교리에 권유, 수찬에 이하진이 임용되었다. 이들은 이후 남인계 문단을 이

2) 李沃, 『博泉集』, 權重經, 『博泉集序』, “暹在乙卯, 先大王初卽位, 遊黜奸兇, 登進俊良, 魁材碩德. 耆艾謨猷之士, 彙征於朝, 一時稱得人之盛, 而館閣翰墨之選尤偉. 梅山李公夏鎭, 霞溪權公愈, 南谷權公楷及公, 俱以文學進, 相與究天人之際, 發雲霞之思, 填唱箎和, 笙鏞一世.”

끌어나가는 주역이 되었다. 이옥, 이하진은 경신대출척 이전 차례로 예문 관제학에 임용되었으며 기사환국 이후에는 권유가 대제학에, 권해가 예문 관제학에 임용되었다. 이들 외에도 시명이 높았던 이서우(예문관제학 역임), 대제학 민암(閔黯)의 아들로 권유의 문학을 계승했다는 평을 받는 민창도(부제학 역임)도 주목할 만한 관각 문인이다.

이들 문인들은 이전 시대 허목, 정두경, 이민구 등 상고적 경향을 가진 선배 문인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이옥은 이민구의 제자이자, 이민구의 조카 이동규(李同揆)의 사위이다.<sup>3)</sup> 권유는 정두경에게 문학을 배웠으며, 이서우는 허목의 제자로 북인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관직에 진출했던 인물이다. 이들은 허목을 비롯한 선배 문인들의 문학을 정치현실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이른바 정예 작가라 할 수 있다.

문장은 하늘과 땅의 정영(精英)한 기운이어서 창업(創業)할 때에는 자연히 나오는 법인데, 수성(守成)하는 임금이 이를 복돋아 기르면 하늘의 운수도 또한 열릴 것입니다. 일시에 권장(勸獎)하는 것은 제왕(帝王)에게 달렸 습니다.”<sup>4)</sup>

허목은 1675년 윤 5월 9일 연석에서 이상과 같은 말을 올린다. 이는 허목만의 구상이 아닌, 즉위 후 강력한 왕권을 문장을 통해 선양하고자 하는 숙종의 의중을 짚어낸 것이기도 하다. 숙종은 즉위 후 다양한 문화적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문예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 군주였다.<sup>5)</sup>

3) 李萬敷, 『息山集』 권22 『先府君家狀』

4) 『국역 조선왕조실록』 숙종 1년 윤5월 9일, “文章乃天地精英之氣, 創業之時, 自然生出. 至於守成之君, 培養之, 則天運亦開. 一時勸獎, 在帝王矣.”

5) 김남기, 『肅宗의 문예적 관심과 한시 세계』, 『진단학보』 98, 진단학회, 2004, 134쪽 참조

2달 뒤 허목은 우의정에 오르자마자 연석에서 다시금 문장은 화국(華國)의 도구임을 강조하고, 근래 조정에서 문학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며 관각 문인들을 다시 선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듬해에는 『고요모(皋陶謨)』와 잠명(箴銘)을 고문체(篆書)로 써서 올렸다.<sup>6)</sup> 이는 단순한 정치적 조언을 넘어, 남인들의 상고적 정치관, 문예론을 주류 담론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의지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허목은 정주학이 원래 육경의 주석임을 강조하고, 공허한 담론에서 벗어나 지행이 일치된 옛 성인의 삶과 성대의 정치를 회복할 것을 주요한 과제로 부각시켰다. 군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질서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며, 『주례(周禮)』 등 고례(古禮)를 끌어와 예송의 논거를 마련해왔다. 문장에 있어서도 그는 육경을 심도 있게 학습하고 재현하는 것이 곧 상고의 성대한 시대를 재현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후 관각에 오른 남인계 문인들은 허목의 문체를 계승하고, 문풍을 진작시키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인식하였다. 왕을 대신해 작성한 비답에서, 권해는 허목의 힐굴오아(詰屈聱牙)한 문체가, 왕도(王道)를 돕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sup>7)</sup> 육경고문에 대한 허목의 신념에 적극 동조한 것이다.

관각 문인이야 당과 막론하고 문장이 국가의 사업을 빛내는 데 유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마련이지만, 남인계 문인들이 가진 특별한 지점은 바로 그 전범의 시대를 높게 잡는다는 데 있다. 이는 앞서 논한바 이들의

6) 『承政院日記』, 肅宗 1年 9月 2日 “文詞, 所以華國, 而近來朝家, 不貴文學, 全無勸獎之道, 故堂下文官, 能文詞者乏少, 良可慨然. 書堂更當抄選, 而大提學金錫胄, 方爲入侍, 可詢而處之也.”; 『(국역) 미수기언』 『年譜』, 병진년(1676, 숙종2) 선생 82세.

7) 『承政院日記』肅宗 4年 3月 1日 “凡進規於前後, 殆數千萬言. 其有裨於國家, 難一二計. 文辭聱牙佶偃, 頌虞夏典謨之書. 誠意懇惻丁寧, 得伊周訓戒之體.”

스승격인 이민구, 정두경, 허목 등에게서 전수받은 가르침이기도 하다. 이들은 수학기 때 진한 위주의 문장을 학습하였으며, 송대 이후 문장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권유는 진한 시대의 무풍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품었으며<sup>8)</sup> 이옥은 장자와 사기는 문장에서 가장 큰 고깃점과 같다고 하였다. 이하진은 뚜렷한 사승관계가 확인되지 않지만 소식, 증공 이하는 논하지 않았다고 자술하였다.<sup>9)</sup>

또 특징적인 것은 삼대와 가까운 선진양한 시대의 문장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지닌다는 점이다. 허목은 제자서를 비롯한 진한고문이 공자의 학술과는 다르지만 천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참조할 수 있고 삼대와 멀지 않아 고기(古氣)를 간직하고 있기에, 독서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sup>10)</sup> 『사기』와 제자서 주요 내용을 모아 『문총(文叢)』을 편집한 바 있다.<sup>11)</sup> 이러한 관심은 다음 세대에 더욱 고조되었다. 이옥은 『장자』가 사상적으로 볼 때 도에 합치되지는 않지만 그 문장만큼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문장수회남화(文章髓會南華)』(不傳)라는 책을 엮었다.<sup>12)</sup> 권해

8) 鄭斗卿, 『東溟集』, 권11, 「讀書說贈權正字」, “權正字愈, 負絕代之奇才, 讀書十年及登第, 慨然有復秦漢之志.”

9) 李瑞雨, 『松坡集』 권12, 「蒼舒李白詩卷跋」, “今汝則所讀秦漢之文而已, 所吟盛唐之絕句而已, 大璞未雕, 素絲未染, 此正發神定志之機也.”; 李玄錫, 『游齋集』 권16, 「文章髓會南華跋」, “博泉子嘗語余曰, 余窺六經尚矣, 無以加矣. 下逮百家, 同工異曲, 莊與馬, 誠文章之大藏哉, 莊周之言, 卮而寓, 縱不合乎道. 顧其沈洋自得, 曷可少哉, 言固不可以人廢也.” “攻文辭則泝泗於昌黎河東之派, 而蘇曾以下不論也.”

10) 許穆, 『記言』 권5, 「文叢序」, “諸子, 自鬻熊, 呂尙及東周, 先秦兩漢, 如老聃莊周列禦寇楊墨氏, 又刑名法術滑稽遊俠從橫用兵, 皆無益於孔子之術者, 然其博物天下之變則得矣……周衰, 人異論, 師異道, 淫詞詖行作, 而天下大亂. 然其文奇詭傑特, 古氣猶爲三代之變也.”

11) 부유섭에 의하면 일본 도서관에 『文叢』이 현전한다고 한다. (부유섭, 『17-18세기 중반 근기남인 문단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09, 116쪽.)

12) 이밖에 장자를 산문학습 및 비평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연대

도 이옥과 마찬가지로 『장자』의 문장을 선별한 『칠원채기(漆園采奇)』를 편찬하면서 육경이 일월(日月)이라면 『장자』는 명산대천(名山大川)과 기화이초(奇花異草)와 같으며, 『장자』의 가치를 부각시켰다.<sup>13)</sup> 1689년에 민창도는 경상감영에서 명나라 심진(沈津)의 『백가유찬(百家類纂)』을 간행하며 우리나라 선비들의 지식 수준은 유(儒)에만 머물고 있다고 비판하며 다양한 제자백가의 학문을 접해야 하다고 주장하였다.<sup>14)</sup> 또 권유는 흥여하 문집에 대한 서문에서 그가 전기(傳記), 이단(異端), 쇤언(瑣言)·잡지(雜誌)까지 참조하여 정신을 넓히고 나라를 빛내는 데 힘썼다고 높게 평가하였다.<sup>15)</sup>

남인계의 문학적 지향은 단순히 취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노선과 결합하여, 노론계와 대립하였다. 숙종은 즉위한 지 1년 뒤 주강(晝講)에서 대신들에게 문학을 배양하는 방도를 물었다. 이때 좌의정 권대운은 여러 신하들에게 글짓기를 시험함으로써 문학을 배양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이에 대한 실록의 사평(史評)은 다음과 같다.

---

소장의 『南華經精選』이 있다. 이 책은 다양한 비점 부호를 활용한 비평을 하고 있으며, ‘妙處, 佳境, 意案, 比喩, 字眼, 傍證, 照應, 層轉’ 등의 비평어가 두주로 달려 있다.

13) 김윤수, 「권해와 《漆園采奇》」, 『도교문화연구』 7, 한국도교문화학회, 1993.

14) 『백가유찬』은 18세기 이후 제자서를 대중적으로 읽게 하는 데 일조하였다. 儒家·道家·法家類·名家類·墨家類·縱橫家類·雜家類·兵家類라는 분류 하에 진한 시기 글을 중심으로 실었고, 宋濂, 何景明 등의 명대 문인의 글도 함께 수록하였다. 이 책은 상당량의 판본이 현재 존재하여 실제로 조선 지식인들의 제자서 독서에서 주된 텍스트로 기능했다고 평가된다. (심경호, 『조선후기 지성사와 제자백가-특히 『管子』와 『老子』의 독법과 관련하여-』, 『한국실학연구』 13, 한국실학학회, 2007, 370쪽 참조)

15) 洪汝河, 『木齋集』, 權愈, 『木齋先生文集序』, “及諸大小傳記異家者流與夫瑣言雜志前世所不滅者, 古之詩賦可以觀志尙知厚薄者, 一皆迹其得失, 脈其蔽短, 刪拾其膏類, 討覈其興寄品格. 要以耀明吾志, 恢廓吾神, 思以美其身, 以爲德榮國華, 不徒聞見博而已.”



임금이 문학을 배양할 도리를 물었으면, 대신으로서 마땅히 옛 성왕(聖王)의 사람을 만드는 방법을 진달하여야 할 것인데, 권대운은 제술(製述)을 시험하는 것으로써 족하다고 하였으니, 그 용암(庸闇)하고 무식함이 심하다.<sup>16)</sup>

숙종실록 편찬을 주관한 노론계 문인들은, 숙종 연간 남인계 문인들을 문예에만 신경 쓰는 무리로 규정하면서 자신들과 구분하였다. 이외에도 문사보다는 도학이 훌륭한 인물로 관각 문단을 조직해야 한다고 한 이견명(李健命)의 발언은 이전 시기 남인계 문단을 겨냥한 것이다. 전서체를 남용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논의나, 공식적인 글쓰기에서 장자(莊子)의 글을 인용하는 것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정권을 회복할 때마다 관각에서 남인계의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7)</sup> 이들의 사례는 문장론이 개인의 취향을 넘어 당파적 의론과 연관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남인계 관각문인들은 허목의 상고적 정신과 문풍을 진작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를 자신의 문학에 적극 반영해 나갔다. 이들의 문학적 도전은 이후 18세기 남인 문단 및 영남 문단에 일종의 문화적 자산으로 전승되어 왔다. 권유의 문하에서는 안정복(安鼎福)의 조부인 안서우(安瑞羽)가, 이서우의 문하에서는 채팽윤(蔡彭胤), 오상렴(吳尙濂) 등이 배

16) 『국역 조선왕조실록』, 숙종 1년 9월 12일.

17) 『承政院日記』, 肅宗 25年 8月 8日 “健命曰……降至叔季, 學校頽廢, 館閣之選, 不過文辭而已, 道學表著者蔑蔑無聞, 誠可歎也.”; 肅宗 7年 11月 14日 “正英又曰, 凡篆字, 於國家吉凶事, 多有用處, 而近日朔書, 皆是雜體, 且不盡心書進, 有若戲弄者然, 極爲寒心. 且自許穆篆字出, 後人, 皆好新效奇, 多用其體, 其爲字樣, 尤爲凶惡. 今後則大小篆及上方大篆外, 雜體禁斷事, 令政院申飭, 何如.”; 肅宗 14年 5月 16日 “獻納金盛迪啓曰, 莊周乃異端之雄, 其所以譏侮先聖者, 罔有紀極, 而至於漁夫一篇, 特尤甚焉, 實吾儒之所不忍道者也. 大司成朴泰遜, 以師儒之長, 入太學招諸生, 揭此爲題, 使之述作, 則其失, 固非細矣”

출되었다. 또 이옥의 문학은 아들 이만수(李萬秀), 이만부(李萬敷), 이만유(李萬維) 등 형제를 거쳐 이승연(李承延), 이병연(李秉延)으로 이어졌다. 민창도가 간행한 『백가유찬(百家類纂)』은 남인계 문단의 독서 범위에 영향을 미쳤다. 물론 성섭(成涉)의 『필원산어(筆苑散語)』에서 보듯 이들의 문학적 성취가 긍정적으로만 기억이 되는 것은 아니다.<sup>18)</sup> 하지만 이와 같은 사승, 혈연관계를 거쳐 이들의 문학은 18세기 문단에 영향을 주었음은 분명하다.

이들 문단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쓰기 방식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남인계 관각 문인 중에서도 권유를 주목한다. 이는 우선 그가 남인계 관각문단의 핵심인물로 활동하며 문단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권유는 고문사를 추구하며 당세 문단의 맹주가 된 인물로 기억된다.<sup>19)</sup> 이옥의 아들 이만수는 권유가 고문 운동을 주도하여 그로 인해 문풍이 변화할 것을 기대하였으며 <sup>20)</sup> 안정복은 그의 문장이 최립과 허목을 이었다고 언급하였다.<sup>21)</sup> 이처럼 권유는 남인계의 문맥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인물이다.

아울러 권유의 작품이 노론계 문인과 변별되는 글쓰기 방식을 탐색하

18) 成涉, 『筆苑散語』 147칙, “我東方, 自國初至于今, 爲文章者, 皆歐蘇餘派也. 舉皆雅馴爲體, 理致爲主, 不爲鉤棘險僻之語, 而霞溪權太學士愈, 生於肅廟朝, 典一世文衡, 而其所作記序碑銘, 惟務憂憂難讀, 使人或不能句而其所刺心鉅目者, 澁僻險怪而止耳. 效其文而鼓其波者, 閔參義昌道, 而一時從遊之人, 大抵然矣. 可謂鬼窟荆棘之途, 而譬之蜉蝣之羽, 燿燿之光, 自起自滅而已.”

19) 吳光運, 『藥山漫稿』, 『亡子行狀』, “霞溪爲古文辭, 主盟當世.”

20) 李萬秀, 『素齋遺稿』, 『與權大學士書』, “今執事學富而文雄, 行方而操端, 爲當世文章之司命, 人物之權衡, 一言之褒重若鼎呂, 一顧之重價增三倍, 則倘所謂倡古文獎後進, 使多士聳勸斯文丕變者, 非執事責任, 而又誰推託哉?”

21) 安鼎福, 『順菴集』 권 22, 『通訓大夫行司憲府掌令知製教古心齋朴先生墓誌銘』, “公惟好古, 於文最深, 下師東京, 宋氏則禁, 往者崔許, 寔關其門, 霞翁繼起, 公實偕騫.”

기에 용이하다는 까닭도 있다. 그는 관각문인으로 활동하면서 노론계 문인들이 제출하였던 글을 다시 쓰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동일한 인물에 대해 노론계 작가와는 상이한 인물전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들 작품을 통해 권유, 나아가 남인계 글쓰기의 특징적인 지점을 포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3. 권유의 생애와 문학

권유의 자는 퇴보(退甫), 호는 하곡(霞谷)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추밀공과에 속한다. 권근(權近)의 11대손이다. 조부는 여주 목사(驪州牧使)를 지낸 권훈(權勳)이고, 부친은 예빈시 봉사(禮賓司奉事)를 지낸 권단(權端)이다. 외조는 예조정랑·장령(掌令)을 지낸 정백형(鄭百亨)이다. 병자호란 때 강화도가 함락되자 자결하였으며 사후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권단은 정백형의 따님 사이에서 권유 외에도 2녀를 더 두었는데, 첫째 따님은 이수광(李睟光)의 증손 이현석(李玄錫)과 혼인하였다.

권유는 1665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가주서, 울봉찰방(栗峯察訪)을 거쳐 1670년 주서에 임용되었다. 1674년 갑인예송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은 이후 중앙 요직에 진출하여 부수찬, 헌납, 대사간, 이조참의, 대사성을 역임하였다. 1675년 1월에는 주장에 시독관으로서 입시하여 허목과 윤희를 경연에 참석토록 해야 한다고 청하였다. 권유는 남인계 종장을 조정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1680년 경신대출척이 발생하자 중앙관직에서 물러나 성천부사로 부임하였다. 1682년에서 1686년까지는 뚜렷한 행적이 확인되지 않아 관직에서 물러나 칩거한 것으로 추정한다. 1686년 길주목사로 부임하였다. 부임

한 뒤에 요통(腰痛)을 핑계 삼아 관무(官務)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다시 집권하자, 권유는 승지, 호조참판에 등용되었다. 예조 판서 민암 등과 함께 송시열과 김수항을 처형할 것을 청하고, 경신환국 때 처형된 남인 이상립(李尙立)·한여신(韓汝信)·이원길(李元吉)·신후징(申厚澄) 등을 신원하는 일에 힘썼다. 1690년에는 진하사은겸진주 부사로 연행을 다녀왔다. 1691년 민첩, 민암 형제를 이어 남인출신으로 대제학에 임용되었다. 이때 태조부터 현종까지 역대 임금의 글을 모은 『열성어제』 편찬 작업을 주관하였다. 권유 이후로는 남인계에서 문형이 배출되지 않았다.<sup>22)</sup>

1694년 갑술옥사로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자 경상도 진보(眞寶) 지역에 유배되었다가 1697년 풀려나 공주와 예산 지역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sup>23)</sup> 다시 서용하자는 논의가 있기도 하였으나 1704년에 사망하였다. 현재 그의 묘소가 광명에 남아 있다고 한다.

처는 경기도도사를 역임한 이행원(李行源)의 따님이다. 자녀로는 권호(權護), 권영(權諶), 권지(權誼)를 두었다. 권호는 문과에 급제하여 영조 때 사간을 지냈고 이산해(李山海)의 현손인 이운근(李雲根)의 딸과 혼인하였다. 권지의 딸은 18세기 남인시단의 맹주 오광운(吳光運)과 혼인하였다.

이처럼 권유는 숙종 연간 정치적 격변의 중심에서 부침을 거듭하는 삶을 살았지만 비교적 큰 화마는 피할 수 있었던 인물이다. 실록에서 권유는 허적(許積)·권대운(權大運) 등을 우두머리로 하는 탁남에 속하는 것

22) 黃玆, 『梅泉野錄』 卷1 上, “南人, 自肅廟甲戌(二十年) 後, 無異廢錮, 文衡自權愈後無之, 閣臣大臣自蔡濟恭後無之.”

23) 李南珪, 『修堂遺集』 冊六 「遊千房寺舊址記」 “循其趾而東數弓, 爲霞溪權尙書故居.”

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탁남, 청남에 구애받지 않고 이서우, 이하진, 이현석, 유명천, 이옥(李沃) 등 폭넓은 교유 관계를 가졌다. 또 손녀 사위인 오광운이 청남계 지도자였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그를 탁남계 인물로 규정하기도 어렵다.

권유는 허목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허목은 권유의 외조부인 정백형의 묘명, 권유의 장인 이행원과 처조부 이덕형의 묘지를 지었다. 또 허목이 특별히 권유에게 연락해 황종해(黃宗海)의 사액제문(賜額祭文)을 청탁하기도 한 상황이 확인된다.<sup>24)</sup>

권유는 출사하기 전에 정두경에게서 문학을 수학하였다. 정두경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장주(莊子)』, 『초사(楚辭)』, 『사기(史記)』, 양웅(揚雄)의 작품 등을 문장의 오악(五嶽)으로 꼽고, 권유에게 부지런히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25)</sup> 이러한 정두경의 가르침은 권유를 거쳐 18세기 남인에까지 전해지게 된다.

나의 할아버지께서 태학사(太學士) 하계(霞溪) 권유(權愈)에게 글을 배웠는데, 권공이 일찍이 정공의 사람됨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웃으면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젊었을 때 정공이 사마천의 《사기》에 밝다는 말을 듣고 책을 끼고 가서 가르침을 청하였다. 정공이 글을 읽으라고 하기에 읽다가 의심나는 곳에 이르러 질문을 하였더니, 정공이 말하기를, ‘자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였다. ‘이러이러한 말 같습니다.’ 하였더니 정공은 ‘좋다.’ 하였다. 그리고

24) 黃宗海, 『朽淺集』, 權愈, 『朽淺集序』 “往歲, 余直玉堂, 眉叟許相國手書, 屬余以竹林書院賜額祭文. 且略道黃徵士隱德, 以徵士之從祀書院也, 余當時不識徵士何方之循, 而只信相國言, 敬諾而製進祭文矣.”

25) 鄭斗卿, 『東溟集』 卷11, 『讀書說贈權正字』, “子知夫登山乎 其山不高 行之不勞 所見不遠 如登萬之峯 行之甚難 及其至也 千里之遠 皆在眼下 讀書亦猶是也 左傳 莊周 屈原 司馬子長 賈誼 • 揚雄 文中之五嶽也歟 權子勉乎哉”

매번 질문할 때마다 좋다는 말로만 대답하는 것이었다. 내가 머리를 숙인 채 글을 읽다가 마지막 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정공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둘러보니, 정공은 방 윗목에서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말하기를, ‘좋고도 좋구나. 글 뜻은 굳이 알 필요가 없고, 그저 많이 읽기만 하면 된다.’ 하였다.”

하고, 인하여 웃고 말하기를,

“글이란 다독(多讀)하여 문장에 능하게 되는 데 있음을 나는 이 노인을 통해서 보았다. 그러니 그대들은 오로지 글을 많이 읽어야 한다.”

지금 두 노인의 독서 방법을 보면 실로 대추를 맛도 보지 않고 통째로 삼켜 버리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지만 그런데도 능히 다독(多讀)을 통해서 문장을 이루었다. 더구나 성현의 글을 읽음에 있어서 이 두 노인이 한 것처럼 공력을 들인다면 그 진취함이 어찌 문장에서만 그치겠는가.<sup>26)</sup>

안정복이 할아버지 안서우의 입을 빌려 기록하고 있는 정두경의 문장 학습 풍경은 다소 낭만적으로 느껴진다. 문장의 깊은 뜻을 궁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그저 끊임없이 읽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고문의 기운을 체화하여 그 문풍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독서를 통해 성인의 뜻을 이해하고, 자연에 내재한 이치를 궁구하려는 성리학적 독서법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다.<sup>27)</sup> 맛도 보지 않고 통째로 삼켜 버리는 독서법이라고 한 안정복의 언급 역시 이러한 독서법이 가진 결점을 어

26) 『국역 순암집(順菴集)』, 椽軒隨筆下, “余王考受學于權太學士霞溪愈, 權公嘗言鄭公之爲人而笑曰, 余少時聞鄭公善馬史, 挾冊而請受, 鄭使讀之, 至疑義問之, 則鄭曰, 君意如何, 曰似如此, 鄭曰好矣. 每問, 必以好答之. 余屈首讀至終篇, 忽不知鄭所在, 舉首視之, 鄭於室上面張袖而舞, 與余目之曰, 好哉好哉, 書之文義不須知, 而惟多讀可矣. 因而笑謂曰, 書在多讀而能文章, 余於此老見之, 君輩唯在多讀書耳, 今觀二老讀書, 實無異昆命吞棗. 然能多讀而成文章, 況讀聖賢之書. 如二老之用工, 則其進豈獨文章而止哉.”

27) 朱熹, 『朱子語類』卷10 “讀書以觀聖賢之意, 因聖賢之意, 以觀自然之理.”

느 정도 염두에 둔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권유는 정두경의 문장 학습법을 계승하여 후진 양성에도 힘썼다. 이익은 권유의 문하에서 나온 사람으로 안서우, 박이문(朴履文)을 꼽았다. 박이문은 1697년 권유가 유배에서 풀려나 예산에 물러나 지낼 때 중유하였다고 한다.<sup>28)</sup> 이외에도 이산해(李山海)의 5대손인 이복운(李復運), 이덕형(李德馨)의 5대손인 이석인(李錫仁)이 권유에게 수학한 인물로 확인된다.

권유는 남인 시맥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이서우와 함께 문명을 떨쳤다. 이옥은 “나는 어려서 고문을 좋아하였는데, 만년에 더욱 독실하게 궁구한 연후에야 더 진보가 있었다. 그러나 문장은 권유에게 못 미치고, 시는 이서우만 못하였다.”고 스스로 술회하였다고 한다.<sup>29)</sup>

권유와 이서우는 당대 남인계 문단에서 일종의 라이벌 관계로 인식되었다. 민암이 문형을 추천할 때 권유와 이서우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두 사람에게 험벽한 시운을 주어서를 짓게 하였는데, 권유가 거뜬히 지어 내자 그를 낙점하였다는 일화가 『좌계부담(左溪哀談)』, 『대동기문(大東奇聞)』 등의 여러 자료에 남아 있다. 또 『삼명시화(三溟詩話)』에는 권유가 난해한 시를 주자 이서우가 난감해 하며 차운한 일화가 남아있다. 이들 일화는 권유가 이서우와 함께 남인 문단을 주도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권유의 문장이 무척 난삽하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28) 李瀼, 『星湖全集』 卷61, 『蔚山府使安公墓碣銘』, “瀼有先執大學士霞溪權公, 實當世文章司命, 出其門者, 亦識其二人焉, 府使安公暨朴大夫履文也.”; 安鼎福, 『順菴集』 권 22 『通訓大夫行司憲府掌令知製 教古心齋朴先生墓誌銘』, “二十遭太夫人憂, 不脫衰經, 不食榮醬, 血泣終三年, 過毀成疾. 服闋, 益自勵爲學, 聞太學士霞溪權先生愈退老于禮山, 以古文訓後進, 從遊八年, 益聞其所不聞, 大肆力於文章, 藝業日進. 權先生亟稱之曰, 斯文之托在此矣.”

29) 李萬敷, 『息山先生文集』, 卷22, 『先府君行狀』, “余少好古文, 晚而愈篤窮, 然後益進. 然文不如退甫, 詩不如潤甫. 退甫者, 權判書愈也, 潤甫者李參判瑞雨也.”

실제로 권유 문학의 성과에 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실록의 즐기에는 그의 문학에 대해 “고문사(古文辭)를 한다고 자부(自負)하였으나, 규탁(規度)에 전혀 어두웠다. 생소하고 이치에 어긋나는 말을 쓰기에 좋아하여, 고상한 것으로 여겼으나 거칠고 비루함을 가리기 어려웠으니, 하나도 볼 만한 것이 없었다.”고 하였다.<sup>30)</sup> 남인계 내부에서도 성섭과 같은 문인들은 그의 문학이 하루살이와 같아 후대에 전해지기 어렵다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최립, 허목을 잇는 고문가로 평가한 안정복의 발언이나 “하계의 문장은 옥당의 신선”<sup>31)</sup>과 같다고 한 정약용의 평을 살펴볼 때 권유 문학의 성과가 완전히 부정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권유의 문집은 전해지지 않는다. 『하계집』 12권이 남아 있다고 하나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지금으로서는 다른 이의 문집과 비석에 남아 있는 작품 42편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기	제목	대상	수록문집
1	1669년경	輓詞	李廷機(1613~1669)	漫翁先生遺稿
2	1676년	輓章	張應一(1599~1676)	聽天堂先生文集
3	1679년경	大臣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春秋館觀象監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世子卿漢山府君鷺渚李公碑銘	李陽元(1526~1592)	鷺渚遺事
4	1679년경	通訓大夫行三嘉縣監洪公墓碣銘	洪采(1584~1649)	果默先生文集
5	1680년	挽章	柳赫然(1616~1680)	野堂遺稿
6	1680년	挽詞	尹鏞(1617~1680)	白湖先生文集

30) 『국역 조선왕조실록』 숙종 30년 9월 20일 “前判書權愈卒, 愈近之後也. 自許爲古文辭, 而全昧規度, 喜用生拗語以爲高, 而無陋難掩, 一無可觀, 其黨推許之, 至典文衡, 以己已凶徒, 被罪竄謫, 未幾放還而卒, 年七十二.”

31)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一集 詩文集第二卷, 『贈權友夔』 “霞溪文藻玉堂仙, 薰歇聲沈且百年”



7	1685년	茶山集序	陸大欽(1575~1638)	茶山集
8	1685년 이후	承政院都承旨趙公墓誌銘	趙威明(1640~1685)	松泉遺稿
9	1689년경	溪巖先生 墓碣銘	金垠(1577~1641)	溪巖先生文集
10	1690년경	墓碣銘	申得洪(1608~1653)	芷潭集
11	1691년	梧里李先生文集序	李元翼(1547~1634)	梧里先生文集
12	1691년	諡狀	全湜(1563~1642)	沙西先生文集
13	1691년	列聖御製 跋文		列聖御製
14	1691년경	南坡洪先生神道碑銘	洪宇遠(1605~1687)	南坡集
15	1691년경	墓碣銘	朴濬(1596~1669)	陶窩先生文集
16	1691년경	墓碣銘	洪河量(1588~1632)	誠齋先生自警錄
17	1691년경	漢山李相國退溪李先生贈答詩草帖跋	李陽元(1526~1592)	鷺渚遺事
18	1692년	復官告由文		莊陵誌
19	1692년경	奉安祭文	洪宇遠(1605~1687)	南坡集
20	1692년경	丙丁日記序	南磻(1592~1671)	丙丁日記
21	1692년경	杜谷先生文集序	洪宇定(1595~1656)	杜谷先生文集
22	1692년경	龍淵書院並享春秋祝文	趙綱(1586~1669)	龍洲年譜
23	1693년	碣銘	洪汝河(1620~1674)	木齋先生文集
24	1693년	木齋先生文集序	洪汝河(1620~1674)	木齋先生文集
25	1693년	敬堂先生文集序	張興孝(1564~1634)	敬堂先生文集
26	1693년	諡狀	權應銖(1546~1608)	白雲齋實紀
27	1693년	仁敬王后誌文	仁敬王后金氏(1661~1680)	
28	1693년	神道碑銘	尹復(1512~1577)	杏堂先生遺稿
29	1693년경	忘憂先生年譜	郭再祐(1552~1617)	忘憂先生文集
30	1693년경	神道碑銘	郭再祐(1552~1617)	忘憂先生文集
31	1694년	穆清殿丕啓靈慶之碑銘		
32	1694년	愚伏鄭先生墓表	鄭經世(1563~1633)	杜谷先生文集
33	1694년	石溪先生墓碣銘	李時明(1590~1674)	石溪先生文集
34	1694년	影堂記	李元翼(1547~1634)	梧里先生文集
35	1694년	墓碣銘	李時明(1590~1674)	石溪集
36	1694년경	東籬先生墓碣銘	金允安(1560~1622)	東籬先生文集
37	1694년경	朽淺集序	黃宗海(1579~1642)	朽淺先生集

38	1697년	行狀	李元翼(1547~1634)	梧里先生文集
39	1698년 이후	林將軍傳	林慶業(1594~1646)	必東錄
40	1701년	李元哲墓碣	李元哲(1615~1671)	
41	1702년	丁彦璧墓碣	丁彦璧(1612~1652)	
42	1702년	月軒集序	丁壽崗(1454~1527)	月軒集

위의 표에서 보듯 이전 시대 남인계 문인들의 생애와 문학을 기린 비명(碑銘)과 서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정경세(鄭經世), 박선(朴璿), 장흥효(張興孝) 등 영남 도학자들의 삶을 기리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남인계 문단의 도학적 연원을 강조하고 영남 남인과의 결속을 공고히 하는 데 힘썼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관각문인으로서 찬한 「목청전비」, 「인경왕후지」 등의 작품 및 신도비명 작품들이 많이 확인된다.

#### 4. 권유 산문의 특징적 양상

##### 1) 삼체와 전고를 통한 대상의 찬양

앞서 언급하였듯 권유 문학은 난삽함으로 기억된다. 이전 시대 최립, 유몽인, 조익 등 난해한 문체를 선보인 문인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왜 유독 그의 문학이 난삽한 것으로 특별히 회자되는 것일까. 직접 그의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자. 권유 글쓰기의 난해성은 타인의 문집에 붙인 서문에서 돋보인다. 일례로 목대흠의 문집인 『다산집서(茶山集序)』를 들 수 있다. 목대흠은 한강 정구의 제자로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의 종사관으로 종군하여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인물이다. 1685년 목대흠의 조카 경상우병사 목존선(穆存善)이 권유에게 서문을 부탁하였다. 이때 권유는 경신대출척으로 조정에 나아가지 않고 칩

거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고시인 중에 명성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자들을 보면 비록 성취한 바가 한 갈래가 아니고 風謠가 하나의 체가 아니더라도 대개 근거한 바가 있기 마련인데 그것에 제한을 받는 것이 대소의 차이가 구분될 뿐이다. 각각 역량에 따라 심원한 것에 감발되니 응집된 精氣가 材力이 미치는 바에 채워나가면 詞理와 문체가 불만해진다. 가령 흡이 있는 것을 면치 못하더라도 큰 바다에 떠 있는 티끌과 같이 하찮게 여겨지니 모두 匠門에 기록될 수 있다. 이는 氣가 가득 채워지고 神이 쓰였기 때문이다.<sup>32)</sup>

인용문은 다산집서의 서두로, 목대흠 시에 대한 평가의 전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글은 일반적인 통사구조를 무시하는데다가 전고를 다량 인용하여 그 뜻을 이해하기 힘들게 한다.

이 글에서는 단구보다는 장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구와 구를 연결하는 접속사와 조사가 비교적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자구 운용 방식이 가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而蓋皆有所于灌輸之者, 而其所爲制’에서는 한 문장 내에 而를 연이어 배치함으로써 연속적으로 글을 전환하고 있기에 어세가 결코 평탄하지 않다. 또 장구를 쓰고 있음에도 벽자와 전고를 다량 활용하고 있어 문맥을 파악하기 어렵다.

사실 이 글은 철저히 『회남자(淮南子)』에 근거해서 쓴 글이다. 표시한 부분은 모두 『회남자』에 나오는 자구들이다.<sup>33)</sup> 심지어 ‘考類’는 『회남자』

32) 권유, 『茶山集(陸大欽 지)』, 『茶山集序』 “觀古詩人之能葉語至今者, 雖步驟不一途, 風謠非一骨, 而蓋皆有所于灌輸之者, 而其所爲制, 區分大小異耳. 各循涯際, 感忽窈冥, 精氣之集, 接盈於材力之所如往, 而詞理色澤可觀. 假而不免有考類, 視之由滄溟之茶, 而皆見錄於匠門, 以其氣爲之充而神爲之用也.”

33) 劉安, 『淮南子』 「修務」 “稱譽葉語, 至今不休.” ; 「主術」 “天下之物無不通者, 其

의 자구들을 취합하여 새로이 만든 단어이다. 『회남자』는 왕세정이 문장 전범으로 부각하긴 하였으나<sup>34)</sup>, 조선 문단에서 단독으로 간행된 일이 없는데다가 필독서로 인식되지도 않았다. 더구나 『회남자』에서 익히 알려진 전고가 아닌 자구 자체를 그대로 끌어와 쓰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요컨대 권유의 산문은 17세기 후반에 문학적 전범으로서의 진한고문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나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전대 최립과 유몽인 등이 진한고문을 비롯한 전범에서 끌어온 자구와 전고는 주제와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며, 독자들에게 작자가 근거한 텍스트를 의식하면서 읽어나가게 한 것인데 반해, 권유의 글은 대상 글과 전범의 관련성이 약할뿐더러 어떤 텍스트에 근거했는지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권유의 문장이 일종의 “삼체”로 명명되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sup>35)</sup>

정약용은 권유가 일부러 자구를 변화시켜 그의 글 중에 지명, 관명의 경우 고증할 수 없는 것이 많았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체제공에게서 들은 일화를 소개하였다. “하계의 주머니 중에 소첩자(小帖子)가 있는데 남들은 보지 못하였다. 이것은 『한서』 중 고문 벽자를 취하여 모두 주석을 달아 정리한 것으로 매년 다른 이들에게 글을 지어줄 때 한 편에 몇 글자를

---

灌輸之者大，而斟酌之者衆也。”；『倣眞』“夫人之所受於天者。耳目之於聲色也。口鼻之於芳臭也。飢膚之於寒燠也。其情一也。或通於神明。或不免於癡狂者。何也。其所爲制者。異也。”；『繆稱訓』“說之所不至者，容貌至焉，容貌之所不至者，感忽至焉。”；『倣眞訓』“譬若鍾山之玉，炊以爐炭，三日三夜而色澤不變，玉上的斑點或裂痕。”；『汜論論』“夫夏后氏之璜，不能無考，明月之珠，不能無類。”

34) 王世貞, 『弇州四部稿』 권144, 『藝苑卮言』, “自今而後, 擬以純灰三斛, 細滌其腸, 日取六經周禮孟子老莊列荀國語左傳戰國策韓非子離騷呂氏春秋淮南子史記班氏漢書, 西京以還至六朝及韓柳, 便須銓擇佳者, 熟讀涵泳之, 令其漸漬汪洋.”

35) 「다산집서」에 대한 분석은 하지영, 「18세기 진한고문론의 전개와 실현 양상」, 이화여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152쪽 참조.

쓰고, 평범한 것은 구를 빼버린 뒤에 다른 글자를 썼다.”<sup>36)</sup> 평소 권유가 일부러 난잡한 미감을 산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노력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일화이다.

그의 난잡한 글쓰기는 공적 글쓰기인 관각 문자에서 보다 빛을 받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목청전비』를 살펴보자. 목청전은 태종이 직접 건립한 태조의 진전으로 개성에 위치해 있다. 태조의 잠저, 혹은 격구를 하던 곳으로 전해진다. 연산군 이후 친제가 거행되지 않고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자 그 중요성이 사라졌는데, 숙종대에 이르러 왕권 강화와 왕실의 존숭이라는 목적하에 목청전 각을 중건하고 비를 세웠다.<sup>37)</sup> 1694년 당시 대제학이었던 권유가 비문을 작성하였다.

내용은 다음 순서로 전개된다.

- (1) 목청전의 지세와 유래
- (2) 태조의 생애
- (3) 목조, 익조, 탁조, 환왕의 이거 과정
- (4) 목청전을 세우게 된 내력

(1)에서 권유는 목청전의 지세를 크게 한번 조망하여 묘사한 다음 목청전에 대한 설 두 가지, 즉 태조의 잠저 혹은 격구터라는 설을 인용한 다음 무엇이 맞는지 정확히 고증할 수 없다고 하였다. (2)에서는 태조가 등극하기 전의 삶을 시간 순으로 짚 서술한 다음 태조가 목청전에서 문왕의

36) 丁若鏞 『與猶堂全書補遺』 『餽飽錄』 “樊翁嘗語余曰，霞溪囊中有小帖子，人莫得見。蓋抄取《漢書》中古文僻字，並其箋釋，藏之，每作人家文字，一篇用數字，經用者句去之，後用他字。”

37) 한희숙, 『조선시대 개성의 목청전(穆淸殿)과 그 인식』, 『역사와 담론』, 2013.

덕과 무왕의 용맹을 길렀다고 평가하였다. (3)에서는 다시 목조(穆祖)로 거슬러 올라가 태조 때까지 선조들이 이거한 내력을 서술하고 하늘의 대화(大化)가 태조에게 축적되었다고 하였다. (4)에서는 목청전의 건립 이후 역사와 숙종이 유희를 수리하게 된 경위와 서술한 뒤 성대한 공렬을 환하게 드러내게 된 것이 영광스럽다고 글을 마무리하였다.

권유의 목청전비는 목청전을 둘러싼 공간과 역사, 의의를 두루 서술하여 왕업을 선양하려는 목적을 충실히 수행한 글쓰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고려 말에 나라에 어려운 일이 많아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고 군대를 자주 동원하게 되었다. (태조는) 잠자코 신략(神略)을 움직이고 세심하게 기수(機數)를 제어하여 뱀과 돼지같은 오랑캐들을 당상(堂上)에서 패퇴시키고 날래고 사나운 도적들을 집안에서 사로잡았다. 융성한 무덕(武德)이 또한 계석(几席) 사이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오백년(五百年) 왕업(王業)을 일으킬 기약이 바로 제때를 만난 것이었다. 급기야 분발하여 회군(回軍)하기에 이르러, 원래 조짐이 없었으나 창성(昌盛)할 때에 움직이자 북쪽의 오랑캐가 군진(軍陣) 앞에서 고무(鼓舞)하고 조야(朝野)가 공의 치하에 기쁘게 귀의하였으니 용주(湧州)의 나무가 무성해지고 조명(早明)의 도참(圖讖)이 들어맞았다. 군대를 지휘하여 팔역을 안정시키고 읍양하여 임금의 자리에 올라, 천하에 대의(大義)를 밝히고 해동(海東)에 보력(寶曆)을 개창(開創)하였다. 군세고 군세가 왕이 하신 일은 바로 가문(家門)에 근거를 두고서 상제(上帝)의 지시를 받들어 천명을 이루신 것이었으니, 대인(大人)이로다.<sup>38)</sup>

38) “及麗季多難國無刑，兵數動，默運神畧，審御機數，蛇豕之羣，北之堂上，驍悍之寇，禽之戶內，武德之隆，蓋亦不出於几席之間，而五百年興王之期，正丁厥時。逮至挺志而班師，原無象，而動於昌，北夷鼓舞軍前，朝野欣歸宇下，湧州之樹重榮，早明之讖允符，指揮而靖八域，揖讓而陟元后，明大義於天下，創寶曆於海東，躡蹻王之造，蓋乃本之家，而承帝之指，而達所命也，大人哉。”

태조의 삶의 궤적을 밝어나가는 부분에서 권유는 대구를 정교하게 짜 맞추는 데 신경을 썼다. 짧은 호흡으로 끊어지는 문장은 걱정적이었던 태조의 삶과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이 글 역시 거의 구절구절마다 전고를 사용하였는데 자구의 일부를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구절 전체를 가져와 문장에 그대로 끼워 쓰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고문의 미감에 근접해 보이도록 하였다.

특히 『시경』과 『서경』을 빈번하게 인용하였는데, 태조의 행적을 중국 선왕의 행적에 비견함으로써 왕업을 보다 선양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한다. 예컨대 “척원후(陟元后)”는 순(舜) 임금의 우(禹)에게 “하늘의 역수가 너의 몸에 있으니, 네가 끝내는 임금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天之曆數在汝躬 汝終陟元后)”라는 대우모의 말을 따서 쓴 것이다. 독자는 이 부분을 읽으며 자연스레 천명을 따라 태조가 왕위에 올랐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의 인용은 관각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왕위에 오르기 전 태조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 『관자』, 『전국책』을 다량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審御機數” “原無象” “動於昌”은 『관자』의 구절을, “北之堂上”, “擒之戶內”은 『전국책』의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다. 『관자』나 『전국책』은 왕도보다는 폐도를 말한다는 이유로 성리학을 신봉하는 조선 문인들에게는 배격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였다.<sup>39)</sup> 관각문학에서 이를 거둬 가져와 왕가를 형상화하는 것은 낯설다고 할 수 있다.

『목청전비』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자』와 『전국책』의 구절은 무인 군주(兵主)가 갖추어야 할 자세, 전승(戰勝)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전

39) 심경호, 『조선후기 지성사와 제자백가 -특히 『관자(管子)』와 『노자(老子)』의 독법과 관련하여』, 『한국실학연구』 13, 한국실학학회, 2007. ; 남은경, 『조선중기 독서경향과 戰國策』, 『대동한문학』 26, 대동한문학회, 2007.

략적으로 논하고 있는 부분이다. 각 전고는 유기적인 의미망을 형성하며 지략과 무위를 갖춘 태종을 찬양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 이와 같은 권유의 글쓰기는 이데올로기적인 혐의는 있을지라도 왕가의 정통성을 현양하는 목적에 충실히 부합하면서도 태조의 강력한 왕권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고의 방대한 활용으로 독자들이 글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고풍스런 문체는 조정의 기상을 높이는 데 유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목청전비』에 대해서 “권유의 글은 비록 험괴하지만 반드시 볼 만한 점이 있다고”<sup>40)</sup> 한 심노숭(沈魯崇)의 평가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목청전비』가 가진 특징적 미감은 노론계 문인 이관명(李觀命, 1661~1733)이 찬술한 『인조대왕탄강구기비음기(仁祖大王誕降舊基礎陰記)』와 대비해보면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 글은 해주(海州)에 위치한 인조의 탄생터에 대한 비명이다. 원래 대제학(大提學) 민암(閔黯)이 저술하였는데, 갑술환국 이후 역적의 글을 남길 수 없다는 이유로 1719년 당시 대제학이었던 이관명이 다시 작성한 것이다.

이 글은 (1) 글을 다시 쓴 배경 (2) 인조대왕 탄생내력 (3) 비석을 세운 배경 (4) 앞으로의 기대 순으로 전개된다.

왕세자가 대리(代理)한 지 3년이 지난 기해년(1719, 숙종45) 신 관명(觀命)에게 명하기를 “해주(海州)에 인조대왕(仁祖大王)이 탄생한 옛터의 비석이 있는데 우리 성상 16년 경오년(1690)에 명하여 세운 것이다. 하지만 그 문장이 역신(逆臣)이 지은 것이라 이를 후세에 전할 수 없다. 그대가 태사(太史)를 맡고 있으니 고쳐 지어 올리라.”라고 하셨다. 신은 명을 받고 머뭇

40) 沈魯崇, 『南遷日錄』 壬戌十月二十三日 “錄事碑, 所謂作者, 雖欲強學, 安得爲作者氣乎. 權愈, 文雖險怪, 必有可觀, 不至如錄事碑矣. 花春君穆清殿碑書印本, 有吾家舊藏也.”



거렸으나, 의리에 감히 사양할 수 없었다……아, 나라의 운명이 없어질 때에 하늘이 위대한 성인을 내시어 마침내 혼포(昏暴)한 군주를 축출하고 종사(宗社)를 받들어 해동(海東)을 중흥(中興)시키는 임금이 되고 만세의 굳건한 기틀을 열게 하였으니, 그 뜻이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으리오. 수산(首山)의 맑고 맑은 기운이 당시에 신령스러운 것 또한 마땅히 춘릉(春陵)의 울울창창함과 더불어 칭송하며 표장(表章)하여 영세토록 전하고자 한다.<sup>41)</sup>

권유의 글쓰기가 관점을 다양화하면서 목청진과 관련한 각종 사실을 최대한 나열한 데 반해, 이관명의 글쓰기는 찬술 배경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작 인조와 관련된 일화는 소략하다. 특히 역적 민암의 글을 후세에 남길 수 없다는 이야기로 과감하게 시작하는 것은 아마도 후대의 평가를 염두에 둔 탓이겠지만 글의 초점을 산만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이관명의 글은 조사를 적절히 활용하여 문장의 가독성을 높였다. 전고의 비중도 높지 않다. “篤生”, “板蕩”은 『시경』에서 취한 구절인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고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권유가 화려한 어조로 시대를 오르내리며 왕업을 칭송하는 데 집중한다면, 이관명의 글은 차분한 어조로 인조의 탄생지, 그리고 비문을 쓰게 된 내력에 대해 찬찬한 호흡으로 서술하였다. 각각의 글은 나름의 미학을 가지고 있는지라 무엇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화국지문’이라는 목적에 보다 근접한 것은 권유의 글쓰기라고 판단된다.

41) 李觀命, 『屏山集』卷8, 『仁祖大王誕降舊基碑陰記』, “王世子代理之越三年己亥, 命臣觀命若曰, 海州有仁祖大王誕降舊基碑, 我 聖上十六年庚午所 命豎. 而其文乃逆臣之所撰, 不可以是傳後, 汝爲太史, 其改述以進. 臣承 命周章, 義不敢辭. ……嗚呼, 天之篤生大聖人於國步板蕩之辰, 終使之黜昏暴奉宗社, 爲海東中興之主, 而開萬世不拔之基. 其意豈偶然哉, 而首山清淑之氣, 效靈於當時者, 亦當與春陵之鬱鬱葱葱, 並稱而表章之, 以垂永世” 국역 『병산집』(한국고전번역원) 번역을 참조함.

자구를 인위적으로 조탁하고 전고를 다량 인용하는 권유의 글쓰기는 가독성을 저해하며 때로 대상과 전고사이의 관계를 명료하게 파악하기 힘들게 한다. 하지만 관각문자가 가독성보다는 대상 인물의 찬양을 중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권유의 글쓰기는 소정의 성과를 획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화국지문으로 강화된 왕권을 선양해야 한다는 남인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 2) 서사에 집중한 인물 기사

권유의 글쓰기는 문체뿐 아니라 진술 방식에서도 노론계 글쓰기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인물의 삶에 대한 기록이 중심이 되는 전장(傳狀), 비지(碑誌) 등에서 그 간극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인경왕후지(仁敬王后誌)』와 『임장군전(林將軍傳)』은 송시열에게서도 동일 작품이 확인되는 바 권유 작품의 특징적 면모를 추출해 낼 수 있는, 나아가 노론계와 구분되는 남인계 글쓰기의 특징을 추론해 낼 수 있는 자료이다.

『인경왕후지(仁敬王后誌)』는 원래 1681년 송시열이 찬술하였는데, 기사환국 이후인 1690년 영의정(領議政) 권대운(權大運)이 무필(誣筆)이라고 하며 다시 짓기를 논하였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갑인년 이후로 적신(賊臣) 아무개는 요동하기 위하여 처음에 친경(親耕)을 권하고 이어서 친잠(親蠶)을 권하고 빈어(嬪御)를 갖추어 요염(妖艷)을 바쳐서 이간할 생각을 하였다.”라고 한 부분으로, 바로 윤희를 겨냥한 서술이었다. 기사환국으로 다시 정권을 잡은 남인들로서는 가만히 둘 수 없는 글이었다. 하지만 지문을 이미 능소(陵所)에 매안(埋安)한 상황에서 다시 짓는 것은 다소 곤란한 일이기에 궁여지책으로 옛 지문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지문을 다시 묻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형조참판 겸 예문관 제학이었

던 권유가 제술을 맡았다. 그런데 숙종 45(1719년)에 간행된 『열성지장통기(列聖誌狀通紀)』에는 송시열의 지문을 수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송시열의 글이 역사적 공인을 받게 되었다.

권유의 글은 송시열의 글과 대비할 때 내용 및 구성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송시열의 지문에서 윤후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과 함께 인경왕후 증조 김반(金槃)의 행적도 대폭 축약하였다. 김반이 대사헌(大司憲)을 역임하였을 때 “간흉(奸凶) 이계(李桂) 등을 논박(論駁)하여 배척(排斥)하고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을 구출(救出)하였다는 부분이다. 송시열의 서술은 인경왕후 집안이 존주대의에 입각한 집안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선조들의 대표 관직 및 행적을 나열하는 부분에서 김반에 대한 세부적인 서술은 통일성을 저해한다는 인상을 준다. 권유는 김반의 관직과 장지만 기록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였다.

이와 함께 서술상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서두와 말미이다.

“삼가 우리 현종 대왕(顯宗大王)을 생각하건대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깊이 생각하셔서 미리 우리의 금상 전하(今上殿下)를 세워 세자(世子)를 삼으시고, 이미 또 옛 제왕(帝王)의 흥망 성쇠(興亡盛衰)가 비필(妃匹)로 말미암지 않는 바 없음을 생각하셨는데, 비필(妃匹)의 어집은 대개 족성(族姓)의 덕미(德美)에 근본하니, 촉(蜀)·도(塗)·신(莘)·지(摯)가 바로 그러하다. 이에 우리 인경 왕후(仁敬王后) 김씨(金氏)께서 간택[審簡]을 받으시어, 신해년 4월 초3일 갑신에 대혼(大婚)의 정례(正禮)를 갖추니, 우리 전하께서 머물고 계시던 제궁(齊宮)에서 친영(親迎)하셨다. 예(禮)를 마치자, 종묘(宗廟)에 고(告)하였으며, 중외(中外)의 군자(君子)들에게 반교(頒敎)하시기를, ‘황류(黃流)의 술을 받힘에 옥찬(玉瓚)에 담기에 합당하니, 믿을 것인저!’ 하셨다.<sup>42)</sup>

42) 『국역 조선왕조실록』 숙종 7년 2월 22일 “恭惟我 顯宗大王深惟宗社大計，豫建我

대개 지문은 간략하게 서술배경을 말하고 대상 인물의 가계를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43)</sup> 그런데 송시열의 지문은 인경왕후가 간택되어 혼례를 치루는 장면으로 과감하게 시작함으로써 독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족성(族姓)의 덕미(德美)”라는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권유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예로부터 천명을 안정시키는 군주는 비록 덕이 자신에 근본해야 하지만 대개 모두 후비의 도움이 있었다. 시경에 일컬어지는 것과 사씨가 전하는 것에서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성녀를 얻어 성주를 본받게 하는 것은 어렵다. 다행히 성녀가 성주를 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을 성장시키기까지 장수하기는 또한 어렵다. 이는 고금 신민들이 간혹 처음에 경하하고 의지하던 바를 잃고 만세토록 슬퍼하는 것이다.<sup>44)</sup>

권유는 송시열의 문장을 수정하며 보다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도록 하였다. 예컨대 “宅命之主”의 경우 『서경』의 ‘宅天命’을 바탕으로 새로이 조어한 것으로 익히 쓰는 표현은 아니며 ‘聖體聖’은 ‘聖女而體聖主’를 요약한 것으로 의미 파악을 힘들게 한다. 또 “此古今臣民之所或失其始之所慶賴巨世而流勳者也.”와 같은 문장은 지나치게 길어 호흡이 순탄하지

今上殿下爲世子，既又以爲古之帝王，其興替莫不由妃匹，而妃匹之賢，蓋本於族姓之德美，蜀塗莘摯是也，於是我 仁敬王后金氏克膺睿簡。辛亥四月初三日甲申，克備大婚正禮，我 殿下親迎于所館之齊宮，禮畢，告于 宗廟，頒教中外。君子曰，黃流之薦，宜于玉璣，其信矣乎。”

43) 일례로 장유(張維)가 지은 『인열왕후장릉지(仁烈王后長陵誌)』의 서두는 한씨(韓氏)의 기원, 가계의 인물을 소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44) 권유, 『仁敬王后誌』 “自古宅命之主 雖其德之本諸身，而蓋皆有后妃之助焉 風雅所稱 史氏所傳 可考信也 然得聖女而體聖主難 幸而聖體聖矣 而持其年成子姓 尤難 此古今臣民之所或失其始之所慶賴巨世而流勳者也。”

않다.

권유의 서두 역시 본격적인 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인경왕후의 생애를 압축적으로 제시하였다. 성녀를 만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더구나 자식의 성장시킬 때까지 장수하여 신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일이 어렵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송시열의 서두가 인경왕후의 가문을 강조한 것이라면 권유의 서두는 인경왕후의 삶 자체를 짧게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본문의 내용은 양자가 거의 일치한다. 다만 송시열은 중간 중간에 의론을 넣어 인경왕후의 삶을 적극 평가하려고 하였으며 의론에 따라 행적을 재배치하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권유는 의론을 줄이고 시간 순으로 배열하여 인경왕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였다. 예컨대 송시열이 말미 부분에 인경왕후 집안의 훌륭한 점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 인선대비의 말을 인용하였는데, 권유는 이것을 혼례를 치르고 난 뒤의 서술로 옮겨 배치되었다.

두 문인의 글 모두 의론으로 마무리된다. 송시열의 묘표문자는 의론성이 너무 강하여 인물의 행적 서술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이미 당대에 그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sup>45)</sup> 『인경왕후지』 역시 이러한 창작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인경왕후의 행적을 두루 서술한 다음 송시열은 말미에 381자 분량의 장황한 의론을 첨부하였다. 전문이 1798자임을 상기해 본다면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니다. 여기에서도 왕후의 훌륭한 집안을 크게 찬양하고, 그녀가 불행히 요절하였음에도 하늘에서 빛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후사 없이 요절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였다.

45) 金昌協, 『農巖續集』 卷下 「上尤齋先生書」, “竊嘗見先生平日所爲墓表文字, 大抵專主議論, 如序記之體, 此固有所本矣, 然古人墓表, 亦多有直敘事行, 而不主於議論者, 蓋或不能樹碑碣於墓上, 則所以考其生卒官歷行治者, 只在於表刻, 故須以敘事爲主也.”

반면 권유의 글은 간략하게 왕후의 삶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왕후는 훌륭한 집안에서 나와 상서로움을 발하고 경사에 응하였다. 어릴 적에는 어질다는 명성이 드러나고 왕후 자리에 올라서는 내조를 바르게 하니 거의 태임과 태사의 조화로운 행동과 마황후와 등황후의 인후함에 가까워 천지신명을 따르고 역조 백성에게 덕을 내렸다. 언덕과 같은 장수와 자손의 상서를 신료와 백성이 함께 바라던 바인데 하늘이 끝내 후사를 잇는 복을 내려 주지 않으시고 갑자기 대록을 버리시어 국인이 처음 서로 경하하던 것이 갑자기 서로 울부짖으며 통곡하게 하였다. 지금 음복의 이치를 과연 믿을 수 없는가. 지금 계비전하가 원자를 낳아 총명하니 실로 하늘이 우리나라를 돈독히 도와 성스러운 후사를 내려주신 것이니, 억만년의 무궁한 복이 여기에 있도다 여기에 있도다. 46)

인용문은 서두의 내용과 호응한다. 성덕을 가졌음에도 요절하여 국인에게 슬픔을 안겼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도, 왕가의 후사가 탄생하여 억 만년의 무궁한 복이 깃들 것이라고 마무리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송시열의 글은 왕후 집안에 대한 칭송으로 서두와 말미를 장식하는 한편 본문에서 역적의 흥계를 강조하면서 서인과 남인계의 대립을 은연중에 부각시키려는 강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 의론에 따라 인물의 생애를 재배치한 것 역시 독자들에게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 진술 방식은 그가 말한바 한유,

46) 權愈, 『仁敬王后誌』 “后出於景胄發祥, 膺慶在孺, 而惠聞章登曜, 而陰教正庶幾哉任姒之化行馬鄧之仁孚, 順神祇心, 降德于衆兆民, 而岡陵之壽, 子孫之瑞, 臣庶之所共竊必之, 天者卒未蒙繼嗣之福, 而奄委大祿, 使國人之始相慶者, 俄相號慕而慟恨, 至今陰鷲之理, 果不可信耶. 今繼妃殿下克生元子, 克岐克嶷, 實天篤右我邦降聖嗣也, 億萬年無疆之休, 其在斯歟, 其在斯歟.”

구양수, 주희 등 당송문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47)</sup>

반면 권유는 대신의 말을 인용하여 이러한 송시열의 글이 후비의 덕을 기록하는 문체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sup>48)</sup> 그는 송시열의 글을 해체하여 시간순대로 인물의 행적을 배치하며, 인물의 삶을 찬양하고 후대에 알린다는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송시열이 인물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독자들에게 의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면, 권유는 문체와 전고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면서도 인물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관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서술상의 차이는 『임장군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인경왕후지』는 왕가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인 만큼 인물에 대한 평가가 고정적일 수밖에 없는 데 비해 사적 글쓰기인 임장군전은 서술 방식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당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권유의 『임장군전』은 규장각 소장 『필동록(必東錄)』 권 4에 수록되어 있다. 정조의 어명으로 간행된 『임충민공실기(林忠愍公實記)』가 노론 쪽 문인인 송시열(宋時烈), 이선(李選), 황경원(黃景源)의 글만을 수록한 데 반해, 『필동록』에는 송시열, 권유, 이선, 이익(李瀾)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sup>49)</sup>

47) 宋時烈, 『宋子大全附錄』 권19, 『記述雜錄』 “先生曰, 吾於墓文, 雖法韓, 歐, 而亦以晦菴文體參用, 非本色之說, 是矣”; 송시열의 묘도문 연구는 안득용,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비지문(碑誌文)의 전범(典範)과 서술 양상에 대한 고찰』, 『한국학 문학연구』 39, 2007 참조.

48) 權愈, 『仁敬王后誌』 “大臣白上曰, 時烈所撰誌文數款, 至陰兇, 且非后妃紀德之體, 且其所解構畢露, 不可以牒惡臣誣敗人之說, 汚皇后方上”

49) 노론과 남인의 서술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윤석, 『林慶業傳 研究』, 정음사, 1985.”와 “김정녀, 『17세기 임경업을 보는 두 시각과 그 의미』, 『어문논집』 40, 1999.” 등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김정녀는 송시열과 이재의 전을 비교하며 17세기 임경업을 보는 시각이 단일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임경업전 연구에서 권유의 『임장군전』은 정황상 이재에 앞서 지어졌을 것이라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권유의

권유의 작품은 7505자 가량으로, 7554자 분량의 이선 작품보다 조금 적다. 임경업의 처에게 내린 정표, 임경업의 시호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아 1697년 이전에 지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더구나 동해야사(東海野士)라는 자칭을 쓴 것을 볼 때 경신대출척 이후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던 1682~1686년이 아닐까 생각된다. 송시열(1689년), 이선(1688년)의 창작 시기보다 조금 앞선다. 권유의 「임장군전」은 망명 이후의 활약이 확대되고, 죽음에 임하는 장면, 후반부 평설 부분이 이재(李裁), 이익의 작품과 상당히 유사하여 이후 남인계 문인 작품에 일종의 모본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 추정한다.

먼저 송시열의 「임장군경업전(林將軍慶業傳)」을 살펴보면 짧은 편폭의 글 안에서 존주대의(尊周大義)에 입각한 인물로 임경업을 적극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성공한 작품이다. 임경업의 삶을 요약적으로 서술하되 말미 부분에서는 삼학사(三學士) 중 한 사람인 홍익한(洪翼漢)과의 만남을 부각하면서 임경업의 삶을 의미화하였다. 평결에서는 삼학사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허적, 성인의 학문을 왜곡하는 윤희에 대한 분노를 토해내고 있다. 이에 송시열의 「임경업전」은 노론계 정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한편 남인 당파를 비판하려는 강한 의도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권유의 「임장군전」은 그의 다른 산문에 비해 평이한 편이다. 까다로운 문체로 임경업을 찬양하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일화를 나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략가로서의 임경업의 모습이 크게 부각되어 나열된다. 처음 금주위(錦州衛) 공격에 가담하라는 청의 지시를 우리를 떠보기 위한 계략으로 알아차린 일화, 자신이 금주위 공격을 전달할 듯하자 용골대

---

글은 초기부터 작품 목록에서 제외되어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권유의 「임장군전」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후고로 미루고 본 발표에서는 권유의 글쓰기 방식에 주목하여 논하고자 한다.



에게 미룬 일화, 북신구(北信口)의 전쟁 때 청인이 조선을 의심하여 청인을 명인 군대로 둔갑한 것을 깨닫고 대포로 공격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는 송시열의 전뿐 아니라 긴 분량을 가진 이선의 인물전에서조차 확인되지 않는 일화이다.

더욱 큰 차이는 망명 이후의 서술에서 나타난다. 이선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고 생략한다 하였고, 송시열은 일록(日錄)에 있으니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권유의 전은 반 정도 분량을 임경업의 망명 후 행적에 집중하고 있다. 등주도독(登州都督) 황종예(黃宗裔)와의 만남과 대화, 지략으로 해도의 도적을 퇴치하는 장면, 마홍주(馬弘周)의 배반 등의 사건이 상당히 상세히 기술되었다.<sup>50)</sup> 사실 이 부분의 기사가 노론들에게 무시되었던 이유는 임경업의 망명과 그 후 행적이 조선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며, 지리멸렬한 명 조정과 명 관료의 배반이 존주대의 명분을 훼손시킬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일 것이다.<sup>51)</sup>

권유는 자료의 신빙성 여부를 막론하고 임경업과 관련한 일화를 최대한 인용하여 나열하는 데에 집중한다. 또 말미에는 임경업이 죽자, 임경업이 타던 말이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다가 죽었다는 일화를 기록하고 있어 흥미롭다. 이는 이익의 전에서도 나오는 일화인데 노론계 문인들의 전에서는 거론되지 않은 부분이다. 반면 의론은 대폭 축약하였다.

50) 망명 후 행적만을 중심으로 기술된 이계의 전은 권유 전의 후반부와 거의 일치하여 권유의 전에서 망명 후 행적만을 부각하여 다시 쓰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51) 일례로 이선은 임경업의 망명이 그의 의지가 아닌, 역적 심기원과 김자점의 꾀드김으로 인한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李選, 『芝湖集』卷13, 『林將軍傳』“清人大怒, 脅我朝, 執送將軍, 將軍聞卽東裝就道, 至金郊驛, 遂仗劍亡命. 始將軍將行, 往辭沈器遠, 器遠贈以守禦廳所儲銀七百兩. 又見金自點, 自點曰, 吾閱世久矣, 世間滋味, 無如玉食, 蓋諺以逃亡, 比之於玉食也, 至是竟逃亡.”

동해야사가 말하기를, 관서 사람은 지금도 임장군을 칭송하기를 그치지 않아 의주에 사당을 세우고 세시에 제사를 지내고 재난이 생길 때마다 반드시 울부짖으며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한다. 이는 그의 마음이 실로 평소 백성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약한 나라에 처하여 울울하게 자신의 뜻을 펼칠 길이 없자, 이에 저 청나라가 하는 짓에 따랐지만 그 마음은 어찌 잠시라도 황조를 잊었겠는가. 환란에서 도망가 바다를 건너 등주에 들어가 천자에 이름이 알려져 거의 천하에 대의를 떨치고 우리나라의 뜻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의지한 사람이 적합한 자가 아니었고 또한 궁벽한 운을 만나 끝내 오랑캐의 포로가 되었으니 슬프도다. 저 청나라가 살려서 돌려보냈는데, 우리가 받아서 죽인 것은 무슨 까닭인가.<sup>52)</sup>

말미의 평결이 전체 글의 1/3가량을 차지하는 송시열과 달리 권유의 글은 임경업에 대한 평을 간략하게 덧붙이면서 마무리한다. 힘이 약한 왕조에서 태어난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한 임경업의 불우한 삶을 조명하면서 권유는 글을 맺었다. 조선에 생환하였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탄식은 조선 정부의 무능함을 아울러 비꼰 것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흥익한, 김자점과의 일화를 부각하여, 일관되게 대명의리에 입각한 인물로 임경업을 적극적으로 부상시킨 송시열과 이선의 글쓰기에 견줄 때 권유의 평설은 소박하다는 인상을 준다. 대신 인물 서사에 집중하여 임경업의 모습과 행적이 보다 풍부하게 드러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인물의 삶을 기록하는 비지, 전장류의 작품에서 권유는 의론을 축약하고 인물과 관련된 사건을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52) 『必東錄』, 權愈, 『林將軍傳』, “東海野士曰, 關西人, 至今稱林將軍不已, 立祠灣上, 歲時祀之, 有災禍必叫, 禱求祐己. 蓋其義誠素深結於民心也, 處弱國鬱鬱無所施, 乃且順彼之所以爲 而志豈嘗須臾忘皇朝哉. 及跳身逢禍, 越滄溟入登州, 名達於天子, 庶幾哉奮大義明我一邦之意於天下, 而所託非其人, 亦會窮運之歸 而竟爲虜所俘 悲夫, 彼生而歸之, 我受而戮之, 何哉?”

것을 선호하였다. 이 점은 서술의 경제성, 구성의 유기성을 추구하면서도 의론을 부각하는 송시열의 글쓰기와는 변별되는 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권유의 글쓰기 방식은 작자의 주제의식을 독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보다 대상 인물에 보다 집중하여 그의 삶을 재현하고 찬양하는 것을 선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5. 결론

한국 한문학사에서 문학은 주로 재도지기(載道之器)로 이해되어 왔다. 도(道)와 문(文)은 일치되어야 하고, 말, 혹은 문장은 뜻을 전달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여겨졌다. 이에 문예만을 추구하거나, 과도하게 수사(修辭)하는 것은 지양되었다. 또 당송 문학의 영향이 강했던 조선 문단은 짜임새 있는 구성하에 작자의 의론을 독자에게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을 보다 의미 있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숙종 연간 남인계 관각 문인들은 한문학사에서 특이한 사례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전대 문인의 상고적 정신과 문학적 시도를 계승하면서도,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체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처럼 문예, 문체, 수사(修辭)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숙종 연간 남인계 관각 문단을 대표하는 권유는 노론계와는 다른 글쓰기 미감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은 자구의 조탁에 힘쓰고 생경한 전고를 끌어오는 등 난해성이 두드러진다. 인물의 삶을 기록하는 전장, 비지류의 글쓰기의 경우 대상 인물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그대로 그의 삶을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노론계 문인과의 차이를 드러냈다. 이러한 권유의 글쓰기 방식은 자신의 주관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대

상 인물의 삶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권유 문학에서 진단되는 난해성, 서사성을 남인계 문단 일반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추후 다른 남인계 관각문인의 작품 분석이 병행되어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관명, 송시열 등의 노론계 문인의 글쓰기와 권유의 글쓰기가 보이는 차이가, 각 당파가 내세우고 있는 전범인 당송과 진학고문 간의 차이와 겹쳐진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권유의 문학은 기이한 개성의 반영이라기보다는, 당대 남인들의 요구와 취향을 극단적으로 추구한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main.do>.
- 『必東錄』, 규장각 소장본.
- 權愈, 『仁敬王后誌』, 규장각 소장본.
- 金昌協, 『農巖集』, 한국문집총간 162, 민족문화추진회.
- 李觀命, 『屏山集』, 한국문집총간 177, 민족문화추진회.
- 李南珪, 『修堂遺集』, 한국문집총간 518, 민족문화추진회.
- 李萬敷, 『息山集』, 한국문집총간 178, 민족문화추진회.
- 李萬秀, 『素齋遺稿』, 문중소장본.
- 李瑞雨, 『松坡集』, 한국문집총간 속41, 민족문화추진회.
- 李選, 『芝湖集』, 한국문집총간 143, 민족문화추진회.
- 李沃, 『博泉集』, 한국문집총간 속 44, 민족문화추진회.
- 李灑, 『星湖全集』, 한국문집총간 200, 민족문화추진회.
- 李玄錫, 『游齋集』, 한국문집총간 156, 민족문화추진회.
- 陸大欽, 『茶山集』, 한국문집총간 83, 한국고전번역원.
- 成涉, 『筆苑散語』, 『중국어문학』 1~2호 영인, 영남중국어문학회.
- 安鼎福, 『順菴集』, 한국문집총간 230, 민족문화추진회.
- 吳光運, 『藥山漫稿』, 한국문집총간 211, 민족문화추진회.
- 王世貞, 『弇州四部稿』, 四庫全書 電子版.
- 劉安, 『淮南子』, 四庫全書 電子版.
- 鄭斗卿, 『東溟集』, 한국문집총간 100, 민족문화추진회.
- 丁若鏞 『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1, 민족문화추진회.
- 沈魯崇, 『南遷日錄』, <http://db.history.go.kr/>
- 許穆, 『記言』, 한국문집총간 98, 민족문화추진회.
- 洪汝河, 『木齋集』, 한국문집총간 124, 민족문화추진회.
- 黃宗海, 『朽淺集』, 한국문집총간 84, 민족문화추진회.
- 黃玿, 『梅泉野錄』, <http://db.history.go.kr/>
- 『(국역)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 김남기, 「肅宗의 문예적 관심과 한시 세계」, 『진단학보』 98, 진단학회, 2004, 131~152쪽.
- 김운수, 「권해와 《漆園采奇》」, 『도교문화연구』 7, 한국도교문화학회, 1993, 115~129쪽.
- 김정녀, 「17세기 임경업을 보는 두 시각과 그 의미」, 『어문논집』 40, 1999, 61~88쪽.
- 남은경, 「조선중기 독서경향과 戰國策」, 『대동한문학』 26, 대동한문학회, 2007, 347~374쪽.
- 백승호, 「正祖時代 政治的 글쓰기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13, 1~181쪽.
- 부유섭, 「17-18세기 중반 근기남인 문단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09, 1~191쪽.
- 심경호, 「조선후기 지성사와 제자백가 -특히 『관자(管子)』와 『노자(老子)』의 독법과 관련하여」, 『한국실학연구』 13, 한국실학학회, 2007, 365~405쪽.
- 안득용,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비지문(碑誌文)의 전범(典範)과 서술 양상에 대한 고찰」, 『한국학문화연구』 39, 2007, 223~259쪽.
- 이운석, 『林慶業傳 研究』, 정음사, 1985, 1~220쪽.
- 임미정, 「송곡 이서우의 시문학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2007, 1~137쪽.
- 하지영, 「18세기 진한고문론의 전개와 실현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1~263쪽.
- 한희숙, 「조선시대 개성의 목청전(穆淸殿)과 그 인식」, 『역사와 담론』, 2013, 187~219쪽.

## ABSTRACT

## The Studies of Literary of Ha Gye(霞溪) Gwon Yu(權愈)

—With Reference to Geungi Namin Gwan-gak literati in the Reign of King Sukjong

Ha, Ji-young

In King Sookjong's period, Namin(南人) Gwan-gak literati developed their own unique writing style while succeeding the antiquarianism and literary attempts of writers from the previous period. Thus, there is no precedent for the high interest in literature, style, and investigation seen in this period.

Gwon-yu represents the Geungi Namin Gwan-gak literati in the Reign of King Sukjong. He exemplifies a different aesthetic of writing. His work has been intensifying the esotericism, such as his efforts of phrasing and quoting from the classics. In case of the writing of Jeonjangryu (傳狀類) and Epitaph (碑誌類) that record the life of the character, he showed the difference with the Noron(老論) writers by choosing to show a character's life as it was rather than actively evaluating the character. The writing method of Gwon-yu can be evaluated as focusing on the life of the character rather than conveying his subjectivity to the reader.

Of course, whether or not the esotericism and narrativity diagnosed in Gwon-yu's literature can be applied to the general Namin Gwan-gak literati should be discussed in parallel with the analysis of the works of Namin Gwan-gak literati. Of course, whether or not the esotericism and narrativity diagnosed in Gwon-yu's literature can be applied to the general Namin Gwan-gak literati should be discussed in parallel with the analysis of the works of Namin Gwan-gak literati. Nevertheless, it seems clear that the differences in the writing of the Noron writers such as Lee Gwanmyeong, Song Siyeol etc. overlapped with the difference between Tang-Song and Qin-Han Writings that exemplified the ideal model of Literature of each party. Gwon-yu's literature can be understood as a

result of an extreme pursuit of the demands and tastes of the contemporaries of Namin, rather than a reflection of a unique individuality.

**Key Words** Geungi Nam-in, King Sukjong, Gwan-gak literati, Gwon Yu, Qin-Han writings, Antiquarianism

논문투고일	: 2018.07.15
심사완료일	: 2018.08.16
게재확정일	: 2018.08.24